

# '전통시장 온택트 체험하러'

군산시, 르네상스사업단 · 인근 지역 교육청과 요리체험 · 문화체험 진행

군산시는 상권활성화재단 르네상스사업단이 전통시장에 새로운 고객층 유치를 위해 군산 및 인근 지역 교육청과 함께 '전통시장 온택트 체험사업'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전통시장 온택트 체험사업'은 다양한 온라인 체험과정을 통해 전통시장에 단순히 상품만 판매하는 곳에서 벗어나 다양한 즐길 거리를 제공하는 곳으로 발전하기 위해 추진됐다. 체험과정은 크게 요리체험과 문화체험 두 가지로 진행된다.

신청자들에게 전통시장 판매제품을 체험용 키트로 제작해 배송한 뒤, 온라인 양방향 소통채널(ZOOM)을 활용한 실시간 라이브 방송으로 체험을 진행하게 된다. 이미 지난 6월부터 군산교육지원청

에 소속된 23개 학교의 교육복지사를 대상으로 체험과정을 시작했으며 이달부터는 전주교육지원청과 천안교육지원청(120여 개 학교)을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사업단은 이 체험사업을 통해 코로나19와 구매패턴의 변화로 오프라인 마케팅의 한계를 겪고 있는 전통시장에 새로운 홍보 방법이 개발되고 학생 및 젊은 층을 신규 고객으로 유입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지양 단장은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온라인 체험과 함께 오프라인 체험과정도 준비하고 있으며, 체험과 교육, 그리고 판매와 결제, 배달까지 전통시장 체험을 위한 '온라인 원스톱 서비스 구축'을 운영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군산=한경봉 기자



군산시 나운3동은 군산드림교회(담임목사 임만호)가 취약계층에게 냉방용품을 지원해달라며 기탁한 성금 500만원으로 20일 '쿨(cool)내나는 여름나기' 사업을 실시했다고

## '쿨(cool)내나는 여름나기' 실시

나운3동, 드림교회 성금 500만원으로 냉방용품 기탁

군산시 나운3동은 군산드림교회(담임목사 임만호)가 취약계층에게 냉방용품 지원해달라며 기탁한 성금 500만원으로 20일 '쿨(cool)내나는 여름나기' 사업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여름철을 맞아 폭염에 취약한 관내 저소득 한부모, 독거노인, 장애인, 다자녀 가구 등 총 71세대에게 선풍기(41대), 여름이불세트(30세트)를 구입해 직접전달했다. 군산드림교회는 평소 지역주민에게 관심을 가지고 꾸준한 성금 및 성품을 후원하는 등 선행을 이어오고 있어 지역사회에 귀감이 되고 있다. /군산=남현봉 기자

드림교회 임만호 목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경로당 등 무더위쉼터 이용이 어려워진 어려운 지역주민들에게 냉방용품 지원을 통해 건강하고 시원한 여름을 보내는 데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종희 민간위원장은 "코로나19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에게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셔서 감사하다"며 "드림교회 신도들의 따뜻한 마음까지 잘 전달하겠다"고 감사함을 전했다. /군산=남현봉 기자

## 군산시,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 대상 업체 모집

평균 매출액 등 120억 이하

군산시는 농공단지 입주업체(소기업규모)에 2021년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사업 대상 업체를 모집 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지원사업의 총사업비는 1억5천백여만원(도비 40%, 시비 60%)으로 지원대상은 공고일 현재 군산시 소재 공장등록된 업체로 농공단지에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제조업체다. 또 '20년 1월 1일 이전 공장등록된 업체'여야 하고, 지난 2020년 연 매출액 소기업 규모 기준 업체에 따라

평균매출액 등 120억원 이하 기준에 맞는 업체여야 한다.

또한, 비제조업, 농공단지 내에서 제품 생산을 하지 않는 기업, 세금 미납 기업, 유사사업 중복지원을 받은 기업은 제외된다.

지원범위는 최종 생산품의 2020년 도(1년간) 물류비를 지원하고, 관할 세무서에 확정 신고한 표준재무제표상 운반비의 50% 지원하며 기업당 최대 1천만원 한도 내에서 보조 50%, 자부담 50%로 지원할 계획이다. 군산에는 현재 4개 농공단지에 155

개 업체가 공장등록돼 가동중에 있다. 선정기준은 '2021년 농공단지 물류비 지원사업' 지원 대상에 대해 공모 1순위는 사업비의 50% 범위 내에서 연 매출액이 적은 업체 순이고, 2순위는 잔여사업비 내에서 관내 농공단지 내 사업영위 기간이 긴 업체 순으로 선정한다.

시는 오는 20일부터 30일까지 접수 받을 예정이며,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www.gunsan.go.kr) 공고(제 2021-1417호) 또는 산업혁신과(☎ 454-2752)를 통해 문의할 수 있다. /군산=한경봉 기자

## 군산지역 10개 신협, 삼계탕 300인분 전달

군산시는 신협 군산지역 이사장협의회(회장 박명수)가 중북을 앞두고 코로나19 및 무더운 날씨로 지친 저소득층 독거노인들이 건강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삼계탕 300인분(환가액 255만원)을 전달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신협사회공헌재단, 전북두손코아보살단과 군산팔마, 군산대건, 군산오룡, 군산월명, 군산제일, 군산반석, 옥서, 군산중앙, 전북서부향운노조, 타타대우자동차친협 등 총 10개 신협이 함께했다. 기탁사에 참석한 신협 군산지역 이

사장단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지역사회 가까운 곳에 있지만 미처 돌보지 못한 저소득층 독거노인들에게 작게나마 도움이 되고, 무더위가 길어진 요즘 여름나기 보양식으로 노인들의 원기 회복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임준 군산시장은 "평소 지역사회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따뜻한 관심과 사랑을 베풀어 주신 신협 군산지역 이사장단에 감사드리며, 저소득 취약계층 독거노인들이 건강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더 세심히 살피겠다"고



전했다. /군산=남현봉 기자

## 군산시-김천시, 우수 농특산물 직거래장터 개최

군산시는 자매결연을 맺은 경상북도 김천시 우수농특산물 직거래장터를 군산월명체육관 앞에서 비대면 드라이브 방식으로 지난 19일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군산시와 김천시는 지난 1998년 자매결연을 맺어 올해로 13회째 농산물 교류를 맺는 등 날마다 우정과 협력관계를 이어가고 있다.

이번 행사는 두 자매도시의 교류를 확대하고, 코로나19 감염 확산으로 관로가 줄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에게 도움을 주고자 김천시의 우수 농특산물 및 군산 친환경농산물을 사전 주문 받아 직거래 장터로 진행했다.

직거래장터 품목은 김천시에서 출하된 포도와 자두, 복숭아 및 군산 친환경 양파 및 감자 등으로 시민, 공무원, 유관기관 등에 적극 홍보해 총 2,219박스, 3천여명여민원의 물량을 현장에서 사전 주문자에게 전달했다. 지난해 직거래장터에서는 1,755상자



(3천여명민원 상당)을 판매했으며, 올해에는 지난해 판매액 대비 18% 증가했다. 판매액 상승 이유는 유통에 따른 마진 최소화 및 품질까지 뛰어난 것으로 입소문이 나면서 매년 많은 군산시민이 찾는 것으로 파악된다.

채형석 농업기술센터소장은 "김천시의 우수한 농특산물과 군산시 친환경농산물을 한자리에서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행사가 군산시민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군산=고병민 기자

### 지역 소식통

#### 침수피해 익산 중앙동 상인 돕기 잇따라

침수 피해를 입은 익산시 중앙동 상인들을 돕기 위한 나눔의 손길이 계속되고 있다.

시에 따르면 중앙동 침수피해 복구와 상인들의 고충을 나누기 위해 1500여명의 자원봉사자가 힘을 보탤 예정이며 현재 1억3000만원이 넘는 성금이 모금됐다.

중앙동 지역은 지난 5일과 8일 내린 비로 인해 200개가 넘는 상가가 침수 피해를 입었다. 이를 복구하기 위해 익산의용소방대를 비롯한 60여개 자원봉사단체, 공무원 시민 등 1500여명의 봉사자들이 구슬땀을 흘렸다.

또 적십자사와 새마을회원은 이불과 의류 접포에 투입돼 이동세탁차량을 활용해 의류 등을 세척하고 익산시자원봉사센터는 상가 내·외부와 거리에 방역소독을 진행했다.

기업과 개인, 단체들은 식료품과 마스크, 성금 등을 잇따라 기탁했다. /김재훈 기자

#### 원광대 SW중심대학사업단 청소년 해커톤 대회 개최

원광대학교 SW중심대학사업단이 2021 Ticket to the dream 온라인 청소년 해커톤 경진대회를 오는 8월 6일부터 8일까지 온라인으로 개최한다.

제2회를 맞이한 청소년 해커톤 경진대회는 미래 개발자인 청소년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활용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이 대회는 3~5명의 팀이 협업에 제한된 시간 안에 아이디어 기획·개발을 통해 동기를 부여하고 성취감을 얻도록 하고 있다.

올해 경진대회 주제는 '인드 로이드즈 앱 개발'로 세부 주제는 대회 당일 공개된다.

앱 개발과 관련된 전·현직 개발자로 구성된 멘토들이 팀별로 아이디어를 발전시켜 실제 개발까지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대회 후에는 팀별로 완성한 앱을 마켓에 실제로 등록할 예정이다.

참가자는 호남권 청소년(17세~19세)을 대상으로 오는 28일까지 15개팀을 선착순 모집한다. /김재훈 기자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